

# 처자(妻子)의 옷을 벗겨 세세생생 절 지붕 떠받치게 하여 속죄하고 싶었던 게야

...

## # '나부상화'의 줄거리?

극작가 우봉규씨가 시나리오를, 박근형씨가 연출한 '나부상화'는 강화 전등사 대웅전의 네 귀퉁이에서 처마를 받치고 있는 '나녀상(裸女像)'에 관한 설화를 각색한 창작 뮤지컬이다. 그 줄거리를 요약하면 대략 이렇다.

## 왕족에 대한 배신, 여인의 변심... 도편수 된 왕동량의 비극적인 삶

여말선초, 자신에 의해 몰락한 왕족들의 후환이 두려운 이성계는 왕족들의 신입이 가장 두터운 당대제일의 문인 왕동량을 잡아 고문한다.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저항하지만, 처자식에게 가하는 고문 앞에선 마침내 굴복하고 만다. 자신의 가족을 살리고자 왕족을 마포나루에 모이게 한 왕동량은 강화로 가는 배에서 왕족들을 수장(水獺)시킨다. 이에 죄책감을 느낀 동량은 절 짓는 도편



'들레'와 사랑의 밀어를 나누는 '왕동량'.

수가 돼 강화 전등사로 내려와 왕족들을 수장시키는데 일조한 '도치'와 술집 작부인 '들레'를 만난다. 이어 전등사 대웅전 공사를 맡은 도편수 동량은 들레와 정을 통하는 사이가 된다. 둘 사이가 그러할 만큼 도편수는 '들레'를 믿고 그녀에게 자신의 돈을 맡겨준다. 그러나 공사가 끝날 무렵 '들레'는 돈을 갖고 사라져 버린다. 그러자 분노를 삭이지 못한 도편수는 전등사 대웅전 처마에 나녀상을 만들고 바다에 빠져 죽는다.

수가 돼 강화 전등사로 내려와 왕족들을 수장시키는데 일조한 '도치'와 술집 작부인 '들레'를 만난다. 이어 전등사 대웅전 공사를 맡은 도편수 동량은 들레와 정을 통하는 사이가 된다. 둘 사이가 그러할 만큼 도편수는 '들레'를 믿고 그녀에게 자신의 돈을 맡겨준다. 그러나 공사가 끝날 무렵 '들레'는 돈을 갖고 사라져 버린다. 그러자 분노를 삭이지 못한 도편수는 전등사 대웅전 처마에 나녀상을 만들고 바다에 빠져 죽는다.

## # '나부상화' 100배 즐기기

장르가 뮤지컬이다 보니 노래와 춤이 많이 나온다. 풍경소리의 이종만 실장이 우봉규 작가의 노랫말에 맞춰 3개월 동안 '내방 강화' 전등사의 노래 '도치의 노래' '눈이 내린다' '동량과 들레' '울서' 등 20곡을 작곡했다. 특히 '감쪽처럼 니다'와 '꽃분이 트로트'는 신명나는 타령조와 트로트 음악을 가미해 어깨춤이 저절로 취할 정도로 흥겹다.



뮤지컬의 백미는 춤과 노래다.

반주음악도 시대극이라는 점을 감안해 국악기



돈을 갖고 도망친 '들레'가 항변하는 장면.

와 현대악기인 신디사이저를 적절히 조화롭게 활용해 듣기에 편안하다. 하지만 저예산의 뮤지컬인 만큼 무대장치는 화려하지 않다. 다만 연극 '불뚝 깨주세요'로 이미 연기력을 인정받은 왕동량역의 최정우와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에서 화려한 울동을 선보인 들레역의 임은혜 등

## 타령조에 트로트 가미 춤 절로 개성적 캐릭터·튀는 대사 '잔재미'

의 물오른 연기가 이 작품을 리드해 간다. 전체적으로 잔재미는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도치'와 '꽃분이'는 이따금씩 미소를 머금게 하는 방자같은 캐릭터로 즐거움을 준다. 특히 남정네들을 유혹하는 '꽃분이'의 '이 몸의 꽃이 오늘도 피는구나. 남정네들의 정은 한순간이라 하지만,

이년의 꽃향기는 영원토록 흠날리리.'라는 대사의 천연덕스럽고 요염한 연기는 객석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또 설화속에서의 나녀상은 도편수의 돈을 갖고 도망친 술집 작부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처·자식을 세겨 넣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으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 농치지 말아야 할 대사

스님과 동량이 나는 마지막 장면의 대사.

스님: *자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었어. 그건 바로 처자였어.*

동량: *그만!*

스님: *한 귀퉁이는 버려뒀은 자네 처고, 세 귀퉁이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네 아이들 이야.*

동량: *흐흐흐!*

스님: *자네는 자네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처자의 옷을 벗겨 세세생생 절 지붕을 떠받치게 하여 죽은 사람들에게 속죄하고 싶었던 게야.*

## # 연출자의 변

전등사와 그 곳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을 떠나 창작 뮤지컬인 만큼 편안하고 즐겁게 감상했으면 좋겠다. 군

## '나부상화' (전등사 후원) 시연을 보고

대학교에 데이트하러 나왔다가 팔짱을 끼고 온 20대의 연인들, 40대 엄마와 20대 딸, 혼자온 50대 아저씨, 들뜬 표정의 외국인들... 3월 24일 저녁 8시 불교뮤지컬 '나부상화'의 시연회가 열린 대학로 세우아트센터는 다양한 나이의 관객들이 객석을 채웠다. 사찰설화를 바탕으로 한 불교문화 공연 한편이 세월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보여준 120분짜리 문화체험이었다. 3월 25일부터 5월9일까지는 세우아트센터에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국립극장에서 무대에 올려지는 뮤지컬 '나부상화'의 시연현장과 공연 100배 즐기기 감상포인트를 해부해 봤다.



연기지도하고 있는 박근형 감독(오른쪽에서 두번째).

이 작품에서 불교적인 의미를 들춰 낸다면 주인공 동량이 자신의 지은 업(業)을 짓는 행위를 통해 소멸시키려고 노력하며 결국에는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이다.

## 설화지만 대중·현대적으로 구성 배우들 연기력 돋보이는 음악극

관객들에게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무대장치도 현대적으로 했으며, 의상도 시대극이라 할지라도 고전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았다. '나부상화'는 엄격히 말해 음악극이다. 하지만 연극적인 요소가 가미된 뮤지컬인 만큼 배우들의 연기력과 정서도 이 작품을 지탱하는 하나의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02)3672-2466-7

글=김주영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02)720-8489**

### 특별 기획안내 (호피 유류선으로 중국여행을...)

○ 출발일 : 2004년 4, 5, 6월

1. 북경 / 백두산 7일 (매주 화요일 출발) 69만원
2. 청도 / 태산 / 곡부 / 천불산 (만불동) 6일 (목, 토 출발) 40만원

### 불교 성지순례 (중국 4대불산)

1. 관음도량 - 보타산 / 낙가산 5일 79만원
2. 지장도량 - 구화산 /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도량 - 아미산 / 낙산대불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 오대산 / 운강석굴 5일 69만원
5. 달라이라마의 성지 - 티베트 / 낙산대불 8일 169만원

☑️ **요금포함내역(공통사항)**

-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호텔(4성급, 2인1실), 전일정 관광 및 식사, 차량료, 선박료, 인천공항세, 현지공항세, 관광진흥기금, 1억원 여행보험
- 불포함사항: 여권, 비자비, 현지 기사/가이드 팀, 개별비용 - 비고: 11명당 1명 무료, 10명이상 출발가능, 인솔자 동행

### 고품격 여행과 윤년 제주도 삼사순례! 소원성취 발생법회를 최남단 마라도에서...

▶ 일요일 출발 - 225,000원 ▶ 화, 목, 토 - 248,000원 ▶ 금요일 출발 - 289,000원

☑️ **요금 포함내역 및 특징**

왕복항공료, 관광 1급호텔 2박, 조식 2회, 중식 2회, 마라도 유람선, 마라도해상국립공원 입장료, 여미자, 퍼시픽랜드 (돌고래, 바다사자쇼), 해미안 녹차/해수 사우나, 제주 10경 관광안내, 차량료, 여행자보험

☑️ **관광일정 - 일요일 출발 기준입니다**

제 1일	제주공항 도착 → 마라도 '기원장사' 방문 및 발생법회 → 오이 설화(설복초벌 및 뮤지컬) 방문 → 호텔 투숙 및 저녁공양(자유식)
제 2일	호텔 아침공양 후 → 동양 최대의 식물원 '여미자' 관광 → 제주 최대의 해금강이라 불리는 '주상절리'를 관광 → 점심공양 돌고래, 바다사자의 환상적인 쇼 '퍼시픽랜드'를 관람 → 동양 최대의 사할 '약천사' → 밀감/버섯 농장 견학 '정방폭포'(혹은 천지연 폭포)를 관광 → 호텔 투숙 및 저녁 공양(자유식)
제 3일	해미안 녹차/해수 사우나(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 아침공양 → 시내에서 쇼핑 → 한라산 내 '신비의 도로' → '정물류 양림'에서 삼림욕!!! → '조랑말 체험' 또는 '동굴리안 마상쇼' 관광 → 성당인음악을 관람 → 점심공양 → '동일물소리대담'(그 권사) 방문 → 제주공항으로 이동 → 김포공항 해산

**50명 이상 단체는 별도의 일정(맞춤)과 가격을 드립니다!!!**